



내 삶을 바꾸는
규제혁신



보도	'21.7.26.(월) 15:30	배포	'21.7.23.(금) 15:00
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----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고 상 범(02-2100-2660)	담 당 자	홍 상 준 사무관 (02-2100-2661)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※ '21.7.26일 발표 '21년 세법개정안 중 ISA제도 관련(조특법§91의18) 참고자료

- 1 -

□ **(현황)** '21.5말 현재 계좌수 191만개, 잔액 8.1조원이며 금년부터 증권형을 중심으로 가입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(☞[참고2])

- 종전에는 편입자산의 70% 이상이 예·적금에 편중되었으나, 주식·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

* 금융투자상품 투자비중 : ('20.12말) 26.2% → ('21.5말) 33.9%

【 ISA가입현황 】

	계좌수(개)				금액(조원)				
	신탁형	일임형	투자중개 (증권)형	계	신탁형	일임형	투자중개 (증권)형	계	예적금 비중(%)
'19.6말	188.7	25.2	-	213.9	5.4	0.7	-	6.2	69.5%
'19.12말	183.6	24.0	-	207.8	5.6	0.7	-	6.3	71.3%
'20.6말	177.0	22.7	-	199.7	5.7	0.7	-	6.4	71.6%
'20.12말	171.9	22.0	-	193.9	5.7	0.7	-	6.4	73.8%
'21.5말	90.3	27.7	72.7	190.8	6.1	1.1	0.9	8.1	66.1%

2. 그 동안의 제도운영 평가 및 개선 필요성

□ ISA 편입자산의 대부분이 예·적금 등 저수익 자산에 치중되어 국민재산형성에 있어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.

- 예·적금과 금융투자상품을 함께 담는 계좌이지만 은행에서 주로 판매되면서 예·적금 위주로 운용되어 왔습니다.

□ 특히, '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 과세*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최대 5천만원의 기본공제*가 적용되므로,

* (주식과 주식형펀드) 소득을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, (그 외 상품) 250만원

- 현행 ISA 비과세 한도(200만원)가 유지될 경우 ISA가 '투자계좌'가 아닌 '비과세 예금'으로 한정될 우려가 있습니다.

※ 그간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온 펀드, ELS 등의 손익과 주식의 양도손익 등 금융투자상품의 자본손익을 통산하여 '금융투자소득'으로 별도 과세

과세\상품	예·적금	펀드	파생결합증권	주식	
현행	이자소득	배당소득	배당소득	양도소득(매매)	배당소득(배당금)
'23년 이후	이자소득	금융투자소득 (통산)			배당소득(배당금)

□ 금년부터 상장주식투자 허용, 투자중개형ISA 도입의 영향으로 ISA (재)가입과 금융투자상품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.

3. ISA 개선 주요내용 * '21년 세법 개정안 기준

◆ '23.1.1일부터 ISA에서 투자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됩니다.

① (비과세 대상) ISA계좌를 통해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*의 양도·환매시 발생한 소득*에 대해 전액 비과세됩니다.

*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 등(배당소득) 일부 제외

※ 자산의 2/3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운용하는 공모펀드(개정 소득세법 §87의18등)
→ 국내 주식형 펀드(ETF, 재간접 포함) 전체와 혼합형 펀드 상당부분 포함
(채권형 펀드, 해외주식 투자 펀드, MMF 등은 미포함)

○ 그 외 상품*은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원(서민형·농어민형 400만원)까지 비과세되고,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%로 분리과세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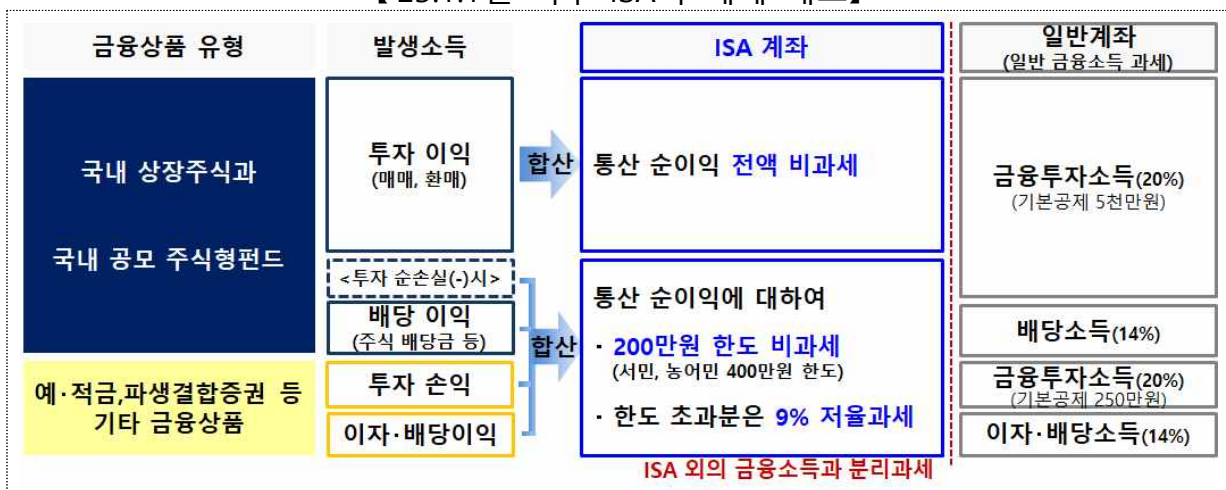
* 예·적금, 파생결합증권, 채권형 펀드 등 (+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 등 포함)

② (과세방식) ISA계좌 내 발생한 모든 손익은 ISA계좌 내에서만 통산되며 그 외의 금융소득과는 통산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.

○ 따라서, ISA계좌의 비과세·분리과세 혜택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*와 별도로 적용됩니다.

*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 5천만원, 그밖의 금투상품 250만원

【'23.1.1일 이후 ISA와 세제 개요】



③ **(납입한도)** 납입한도(年 2천만원, 총 1억원)와 가입기간(3년 이상)은 現 수준에서 유지됩니다.

④ **(시행일)** '23.1.1일 시행됩니다.(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시기와 일치)

- '23.1.1일 前 ISA에 가입한 경우에도 '23.1.1일 이후 계좌정산(손익통산 등)이 이뤄질 경우 개편된 제도가 적용*됩니다.

* ① '23.1.1일 이후 계좌만기가 도래하는 경우

② '23.1.1일 이후 최소계약기간(3년)이 경과하여 원리금을 중도인출할 경우

③ '23.1.1일 前 만기가 도래했으나, '23.1.1일 이후로 만기를 연장(예: +3년)

4. 기대효과

□ **(투자자)** 증권형ISA를 통한 투자가 세제 측면에서 매우 유리해지므로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ISA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최대한 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

☞ **[예시]** ① 주식 양도차익 5천만원 이하 → ISA에서 투자시 일반계좌에 비해 배당소득이 비과세(200만원 限) 및 저율과세 되므로 유리
② 주식 양도차익 5천만원 초과 → 배당소득세 절감효과 뿐 아니라 5천만원 초과 금투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되므로 일반계좌보다 유리

□ **(자본시장)** 주식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단기매매보다는 장기투자(3년+) 및 분산투자 문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- 금투업자들도 운용성과를 통해 투자자 평가·선택을 받게되므로 수익률 향상 등 경쟁력 제고노력을 한층 기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.

☞ **[예시]** ① 3년의 최소가입기간 부여 → 자본시장에 대한 장기투자 유도 효과
② 주식·주식형펀드에서 최종 순손실(-) 발생시, 그 外 자산의 순이익*에 합산되어 추가 비과세 효과 → 다양한 자산군간 분산투자 유인확대
* 주로 채권형 펀드, MMF 등 중·저위험 자산의 이익과 배당주 배당금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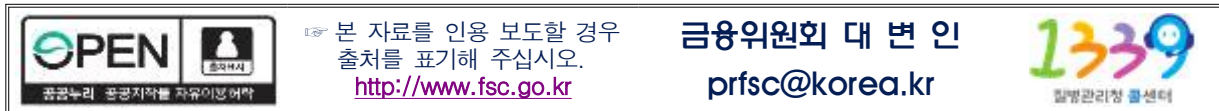
□ **(국민경제)** 국내기업의 경영성과를 국민들이 공유하면서 재산형성의 기반이 마련되고,

- 저금리 하의 투자수요를 부동산·가상자산보다는 생산적 분야로 유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5. 향후 추진계획

- 기획재정부·금융위원회는 금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ISA제도 개선 관련 향후 입법논의를 적극 뒷받침해나가는 한편,
- 금융투자협회 등 관련기관과 함께 제도의 안착을 위한 전산 시스템 준비*, 관련규정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* ISA계좌 내 손익통산·원천징수 체계 구축, 계좌간 이전절차 간소화 등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- **(개요)** 예금·펀드·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투자손익을 통산하고 세제혜택도 받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조특법 §91의18)
 - 예·적금, 공모펀드, 파생결합증권, 상장주식 등에 투자 가능
 - 신탁형, 일임형, 투자중개형(증권형) 中* 택1 (1인 1계좌)
 - * 신탁형은 신탁업자가, 일임형은 일임업자가 모델포트폴리오(MP)를 통해, 증권형은 투자중개업자(증권사)를 통해 직접투자하는 계좌
- **(가입요건)** 19세 이상 * 다만,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
- **(의무가입기간)** 3년 * 납입 원금 이내에서 중도인출 허용
- **(납입한도)** 年 2천만원(총 1억원) * 5년 한도에서 미납입분 이월 가능('21년~)
- **(세제)** 가입기간 중 순이익에 비과세(200만원 限, 서민*·농어민 400만원), 비과세 한도초과분 저율 분리과세(14%→9%)
 - * 총급여 5,000만원 이하 / 종합소득 3,500만원 이하
- ※ '21년부터 일몰폐지, 가입대상 확대 등 가입저변 확대, 상장주식투자 허용·투자중개형 신설 등 국민자산형성 지원역할 강화

【 '21년 ISA 제도개편 내용 】

구분	~'20.12월	'21년~
①운영기간	· ~'21.12.31일	· <u>영구화(일몰 폐지)</u>
②가입대상	· 소득이 있는자	· <u>소득요건 폐지</u>
③편입자산	· 예·적금, 펀드, 파생결합증권등	· 좌 동 + <u>상장주식 추가</u>
④계약형태	· 신탁형, 일임형	· <u>증권계좌형태 ISA 신설(투자중개형)</u>
⑤납입	· (계약기간) 5년 * 단축·연장불가	· (최소계약기간) 3년 * <u>연장허용</u>
	· (납입한도) 연 2천만원 * 전년도 납입분 이월불가	· 좌 동 * <u>5년한도에서 미납분 이월납입 가능</u>
⑥세제혜택	· 계좌 내 이자·배당소득 손익통산	· 좌 동 + <u>주식 양도차손 통산</u>
	· 순이익 비과세(200만원 限) * 서민형 등 400만원 限	· 좌 동
	· 한도 초과분 저율분리과세(9.9%)	

□ '21.5말 기준 계좌수 191만개, 잔고 8.1조원으로, 잔고 증가 (+1.7조원), 계좌수 비슷

○ 계약형태별로는 신탁형에서 투자중개형(증권형)*으로, 업권별로는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(예금→투자) 추세**

* 계약형태별 비중(%), 신탁형/중개형) : ('20말) 88.3 / 없음 → ('21.4말) 75.1 / 11.1

** 업권별 비중(%), 은행/증권사) : ('20말) 87.4 / 12.6 → ('21.4말) 81.1 / 18.8

【 ISA가입 통계 개황 (만개, 조원) 】

		'16말	'20말			'21.5말			
				신탁형	일임형	신탁형	일임형	중개형	
은행	계좌수(만개)	218.0	178.3	159.2	19.1	110.3	83.9	26.4	-
	금액(조원)	2.7	5.6	4.9	0.7	6.6	5.5	1.0	-
증권	계좌수(만개)	21.0	15.6	12.7	2.8	80.4	6.4	1.3	72.7
	금액(조원)	0.7	0.8	0.7	0.1	1.5	0.6	0.1	0.9
합계*	계좌수(만개)	239.1	193.9	171.9	22.0	190.8	90.3	27.7	72.7
	금액(조원)	3.4	6.4	5.7	0.7	8.1	6.1	1.1	0.9

* 보험업권 취급액 포함 ('21.5말 잔고 2억원으로 미미)

□ 편입자산 구성은 그동안 예·적금에 편중(73.8%)되어 왔으나, 투자중개형ISA 활성화로 예·적금 비중 감소(66.1%, △7.7p%)추세

【 ISA유형별 편입비중이 높은 금융자산 유형('20말 → '21.5월, 억원, %) 】

'20말 (6.4조원)				'21.5말 (8.0조원)			
	자산유형	금액	%		자산유형	금액	%
1	예·적금	50,227	73.8	1	예·적금	55,716	66.1
2	국내 채권형F	4,210	6.2	2	파생결합증권	5,230	6.2
3	파생결합증권	3,434	5.0	3	주식	4,393	5.2
신탁형 (5.7조원)				신탁형 (6.1조원)			
1	예·적금	50,126	83.7	1	예·적금	53,755	84.5
2	파생결합증권	3,330	5.6	2	파생결합증권	4,189	6.6
3	해외 주식형F	1,135	1.9	3	해외 주식형F	1,255	2.0
일임형 (0.7조원)				일임형 (1.1조원)			
1	국내 채권형F	3,341	40.9	1	국내 채권형F	3,639	30.6
2	해외 주식형F	1,474	18.0	2	해외 주식형F	2,593	21.8
3	MMF	1,092	13.4	3	MMF	1,936	16.3
				투자중개형(증권형) (0.9조원)			
1	주식	4,353	49.6	1	주식	4,353	49.6
2	예수금*	1,762	20.1	2	예수금*	1,762	20.1
3	파생결합증권	980	11.2	3	파생결합증권	980	11.2

* 미투자/대기성 자금 등